





##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대상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강길주\* · 이상열\*\*

### 〈요약〉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심리적 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rauma 및 PTSD 관련 문헌연구와 Trauma 및 PTSD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 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주제어 : 경찰공무원, Trauma, PTSD, 심리지원, 경찰복지

\*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과정 (제1저자)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사결과
IV. 결 론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찰의 임무는 실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들과 비교할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인 탈진을 비롯하여 순직·공상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체계 등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사기는 극히 저하되어 있다. 각종 범죄의 예방과 검거는 물론 완벽치안 구현 그리고 대국민서비스 증가 등 과중한 업무를 고려할 때 경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상열, 2005: 51).

경찰공무원은 업무 중 다양한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경찰공무원의 임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혹한 범죄현장 목격, 강력범죄의 대치 및 피습, 자살자 및 교통사고 현장 목격,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안전사고 등 다양한 외상사건에 노출된다(이정현 외, 2015: 61-62).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산업재해자료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 스트레스, 알콜 및 물질 사용 장애, 근골격계 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많은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변영석 외, 2015: 393).

경찰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방치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치료하여 자아효능감과 직무만족으로 조직에 몰입

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마음동행센터(전, 트라우마 센터)의 확충과 더불어 센터의 법적·제도적 내실 있는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매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국가적 재난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과 외상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하는 경찰관의 Trauma와 PTSD를 완화 또는 치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면담이 가능한 2018년으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는 경찰공무원의 Trauma와 PTSD 대응방안을 위해 학위논문, 각종 학술지,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세미나 자료, 공청회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Trauma를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질적 주제 5개와 드러난 주제 13개에 대해 심층 면담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트라우마(Trauma)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trauma)의 그리스어 어원은 “몸에 가해진 상처”이다. 트라우마는 감당하기 힘든 외부적 자극으로 생긴 내적 상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진숙, 2013 : 176). 외상(Trauma)이란 첫 번째 의미로는 폭력 또는 공격적 행위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인 상처 혹은 충격을 말하며, 두 번째 의미로는 심리적 손상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한다(이주대학교, 2008: 7).

DSM-Ⅲ에서는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을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이라고 정의하

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외상성 사건의 개념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DSM-IV에서는 외상성 사건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로 죽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한보람·김정규, 2014: 533).

한편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PTSD는 사람이 각종 사건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대해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다(Markus, Hunt, Palmer, Enzinger, Schmidt & Schmidt, 2005: 1410-1414; 김종길, 2012: 32 재인용).

## 2. 경찰 마음동행센터

### 1) 설립취지 및 필요성

경찰 마음동행센터(구. 경찰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사건들로 인하여 PTSD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하였다.

경찰 마음동행센터(구. 경찰트라우마센터)의 설립취지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들이 PTSD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둘째, 외국에 비해 PTSD 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셋째, 경찰관은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치료를 기피하는 조직문화를 이루고 있다(박재풍, 2016: 75-76).

### 2) 상담 및 치료대상

전국 경찰관과 검시관 가운데 Trauma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나 Trauma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거나 Trauma의 혐오스러운 세부내용에 반복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노출되어 간접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다(송해영, 2015: 9).

### 3) 운영 현황

2017년에 기존의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경찰 마음동행센터로 개칭하여, 현재 전국에 서울 2개소, 부산, 광주, 대전, 경기남부 등 6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경찰 마음동행센터에는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면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상담만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경우 전문의사가 센터로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PTSD 장애 검사·상담 등 병원 정신과에서 담당 하던 부분을 상담실에 실시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김경태, 2017: 61).

## 3. 선행연구 검토

이지영·임재호·서수연(2017)은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를 고찰하고자 6가지 문제 영역(수면, 우울, 스트레스, 자살, 음주, PTS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1로 진행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업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 임용 직후가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로 나타났으며, 경찰공무원 본인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이 취약함을 알고 있지만 쉽게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자들은 기존의 비밀보장성에 대한 의심과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같은 장애물을 고려하여 경찰서 내에 상담 전문가의 상주, 정신건강에 대한 의무 검진 시행, 온라인을 활용한 제도 구축 등을 건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으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하여 경찰서별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직무스트레스 대응 역량 및 인식제고, 심리상담 참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매뉴얼 교육과 상담 병행, 경찰 내부 상담실무자 양성과 전담인력을 통한 효과적 인사관리, 경찰공무원 퇴직자를 활용하는 상담전문가 육성, 표준화된 교재와 실질적 활용,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담지원 모형 개발, 예산증액과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경찰복지 실태 조사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태(2017)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출동이 많은 계급의 경찰관들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가 높은 지구대, 생활안전, 형사, 교통경찰관의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전수 검사 실시 및 5년 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경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마음동행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기

적인 정신건강 검사의 실시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그리고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정현 외(2015)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기질 및 성격 특성의 관계를 통한 연구에서 자기중심성(Self-Directedness, SD) 성격요인 점수가 낮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각성 및 회피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D는 자기존중감이나 책임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을 시사하였다. 유재두(2013)는 외상 경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형태와 PTSD와의 관계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의 대처형태는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중심과 문제중심 보다는 경찰공무원이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PTSD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려면 역기능 대처 위주의 스트레스 해소를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복지 차원의 치료와 관련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

한보람·김정규(2014)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상성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상이 증가하였고, 외상성 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더욱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증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의 개입 필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퇴직경찰관이나 현직 경찰관 중에서 소양이 있는 자원자들을 선발하여 동료-지지에 대한 상담 실시와 동료 상담가로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하였으며(이지영·임재호·서수연, 2017; 이정현 외, 2015), 마음건강(동행)증진프로그램의 활성화(이지영·임재호·서수연, 2017; 김경태, 2017)와 퇴직경찰관 상담 전문가 활용(이지영·임재호·서수연, 2017; 한보람·김정규, 2014),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신건강 검사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방법	내용	정책제언
이지영 외 (2017)	심층면담	임용직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경찰서 내 전문상담가 상주 등을 건의	직무스트레스 대응 역량 및 인식제고/퇴직경찰공무원 활용 전문상담가 육성
김경태 (2017)	설문조사	지구대, 생활안전, 형사, 교통경찰 등이 스트레스 장애점수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남	고위험군 경찰관에 대한 집중관리/주기적인 정신건강검사/해바라기센터와 연계 운영
이정현 외 (2015)	설문조사	자기중심성(SD)는 자기존중감이나 책임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자기존중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 완화나 예방에 도움
한보람·김정규 (2014)	설문조사	외상사건 경험의 수와 충격정도가 높은 경찰관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PTSD가 더욱 증가함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퇴직·현직경찰관을 선발하여 동료-지지에 대한 상담 실시
유재두 (2013)	설문조사	스트레스의 대처 형태는 PTSD에 영향을 미침	복지차원의 치료/ 관련 법률의 마련

### Ⅲ. 조사결과

####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주최한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을 이수(2018-03030)하고 생명윤리법 제16조에 의거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인간대상연구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참여자의 자유로운 구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는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개인 신상에 대하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기입식 설문지 내용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경찰서에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강력사건, 범죄 수사업무 등을 경험한 현직 경찰관 3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의 Trauma 및 PTSD 실태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연구참여자로 승낙한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은 2018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하였고, 총 소요시간은 120분이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심리적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주변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한 후에 음성녹음파일은 즉시 삭제하였다. 면담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진행하였으며 음성통화 녹음파일도 녹취록 작성 후 즉시 삭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조사에 대한 기입식 설문지와 면담내용 녹취록,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기본으로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입직동기로부터 현재의 심리상태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시각을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참여자와 라포형성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지인을 동행하여 사전모임을 가졌다. 심층면담에서는 질적연구 경험을 가진 경찰학 연구생으로 동료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집단의 자문으로 연구의 방향이나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기술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을 위하여 전화면접을 통해 검토를 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추후의 연구결과 재검토를 위해 녹취록과 메모지 등의 기록을 남겼다. 연구자가 동료집단과 동행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에게서는 경찰에 입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현재 배치된 부서에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다?’, ‘연구참여자에게서는 직무수행 중 본인이나 동료가 심각한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공상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공상을 당했다면 ○주 진단), ‘연구참여자에게서는 고속의 차량 추격전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직무수행 중 사체(자살사건, 변사사건) 목격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직무수행 중 사회적 관심사건(유괴, 강간, 살인, 재난<수해, 화재, 인재> 사고) 목격 경험이 있습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현재 수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구참여자에게서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연구참여자께서는 가능하다면 즉시 휴식을 하고 몇 개월 휴식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세)	입직경로 (총 경력)	계급	학력	건강상태	종교
1	남	46	순경공채 (19년)	경사	대졸	양호	불교
2	남	50	순경공채 (23년)	경위	대졸	양호	없음
3	남	52	순경공채 (27년)	경감	대학원졸	양호	없음

## 2.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Trauma 및 PTSD

면담내용인 본질적 주제와 드러난 주제에 대해서는 김해숙·임남일·이혜진(2018), 한소정(2017), 이근무·김진숙(2010)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에 따른 의미단위들을 분석하여 주제들을 도출했는데 그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본질적 주제(사고현장의 참혹함, 심리적 충격, 일상화된 사고현장, 또 다른 고통, 마음 내려놓기)와 하부요인인 드러난 주제 13개 항목이다.

〈표 3〉 연구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사고현장의 참혹함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사고현장의 기억
	동료(선배)들의 따가운 시선
	시각과 후각의 기억력
심리적 충격	사건현장을 처리하는 하루의 마무리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충격 극복하기
일상화된 사고현장	사고현장 바라보는 시각 정립하기
	누구를 위한 사고조사인가
또 다른 고통	사고 조사를 바라보는 시각
	경찰위의 경찰
	내부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
마음 내려놓기	마음의 휴식이 필요함
	필요한 휴식이 보장되는가?

## 1) 사고현장의 참혹함

### (1)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사고현장의 기억

경찰공무원들은 첫 번째 사고현장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연사한 시신을 보는 경우에도 대부분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시신을 접할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더할 것이다.

경찰관이 되어 처음 사망사고 현장에 출동지시를 받고 사건현장에 도착하니 어떤 사람이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을 했어요. 저는 이런 사건에 처음이라 약간 당황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나이가 어린 저한테 시신을 내리라고 했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선배들이 호통을 쳤어요. “경찰이 이런 현장 한 두 번 보는 거야? 앞으로 경찰생활 계속하려면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이야!” 선배들의 호통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줄을 풀었습니다. 시신을 내리고 나니 목에 매어 있는 끈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끈을 풀었는데 목에서 “끼익”하는 트림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아!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뒤로 벌러덩 넘어갈 것 같았으나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맥주를 마시고 자살을 한 사람은 뱃속에 가스가 차 있다가 목에 맨 줄을 풀면 그때야 뱃속의 가스가 목으로 뿜어져 나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연구참여자 1>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차량이 충돌하여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었다. 사망에 피와 살이 튀어나가 있고 그야말로 시신은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되어버렸으며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는 잊혀지질 않습니다.<연구참여자 2>

나는 첫 번째 사건현장을 경험한 것이 갈에 찢려 사망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다. 초여름에 범인이 살인을 하고 시신을 농수로 관로에 유기 했는데 비가 내리면서 농수로에 유기된 시신이 떠내려 온 것입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물위에 둥둥 떠 있는데 그 시신을 건져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물속에 가라앉은 시신은 수중탐색대가 수습하는데 이미 떠 오른 시신은 출동경찰관이 건져내야 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농로에 걸린 시신을 건져 올리면서 나는 온 몸에 소름이 돋고 머칠을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연구참여자 3>

### (2) 동료(선배)들의 따가운 시선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경찰관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경우에 동료(선배)들이 용기를 주고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호통부터 치고 다그치는 것으로 보였다.

처음 사건현장에 출동하면 아무리 경찰이라도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조언보다는 정신상태가 바르지 않다고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서운하고 힘들었습니다.<연구참여자 2>

교통사고 현장의 참혹함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분해되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교통사고현장의 피비린내로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은 바짝 서고 내 피도 치솟는 느낌이었습니다.<연구참여자 1>

처음 사건현장에 나가서 정신이 얼떨떨한데 경험 많은 선배들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며, 어찌나 선배들이 호통을 치는지 그 소리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구참여자 3>

### (3) 시각과 후각의 기억력

경찰관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난 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다음 사건을 접하는 상황이었다. 사건은 밀려있고 휴가를 간다고 해도 접수한 사건은 본인이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마음치료는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사건의 충격의 계속 기억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산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매서 자살한 시신을 내린 후에는 산에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혹시나 산에 가면 자살한 시신을 다시 목격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어쩔 수없이 산에 올라가다가 시신이 썩는 특유의 냄새가 산속에서 나는 것 같아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연구참여자 1>

대형교통사고 현장의 참혹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의 피비린내와 시신의 모습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 기억은 한참을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구참여자 2>

물속에서 뭔가 물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혹시 사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역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 옆에 농로가 있고 흰색 물체만 보여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3>

## 2) 심리적 충격

### (1) 사건현장을 처리하는 하루의 마무리

경찰공무원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현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현장에서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사건이고, 이 사건은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연구참여자 1>

맡은 사건을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전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밀려있으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일이 쌓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연구참여자 2>

어떤 때는 비서를 두고 싶다니까요. 일은 쌓여가고 업무처리는 독촉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진상민원인 만나면 답이 없어요. 계속 민원을 넣고 경찰관 괴롭히는 법을 터득한 사람 같아요.<연구참여자 3>

### (2)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참혹한 사건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했던 경찰관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화가 미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나쁜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다”, 무슨 “귀신이 씌었다”는 등, 남의 핑계를 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핑계의 원인이 자신이 될까 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사망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나쁜 기운을 물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근처에서 자고 사건당일 집에는 안가려고 합니다. 어떤 동료는 자신에게 소금을 뿌려달라고도 합니다.<연구참여자 1>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짹짹하고 혹시나 가족들에게 무슨 해가 있을까 걱정은 되죠.<연구참여자 3>

사망한 시신을 처리하고 나서 마음이 짹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이 밀렸다는 핑계로 집에 안들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걸 이겨내려고 적극적으로 집에 가려고 합니다.<연구참여자 2>

### (3) 충격 극복하기

참혹한 사건을 처리하고 나면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운동이나 술, 드라이브 등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테니스를 하는데 쉬는 날은 완전히 테니스에 온 몸을 던져버립니다. 요즘 하는 말로 소위 몰빵을 합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나가서 7시 경에 시작하면 점심은 배달음식을 먹고 저녁때까지 종일 테니스만 치기도 합니다.<연구참여자 2>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물론 술도 그 중에 하나죠. 어떤 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나쁜 기억을 잊기위해서 마시기도 하지요.<연구참여자 1>

나는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근무하기보다는 남들이 산간벽지라고 생각하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연구참여자 3>

### 3) 일상화된 사고현장

#### (1) 사고현장 바라보는 시각 정립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을 생각하다가도 “이 일은 나에게 맡겨진 숙명이다.”라는 심정이 되었다고 한다. 누군기는 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경찰이 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참혹한 장면을 조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2>

저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동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가면서 저 혼자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저않게 되었습니다.<연구참여자 1>

저는 우울감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자살치료센터의 자살예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생활에 만족하고 마음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연구참여자 3>

## (2) 누구를 위한 사고조사인가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이 숙명이라고 받아들인 후에는 사고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한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한 경찰상을 회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

사고조사현장에서는 가급적 직무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내가 맡은 일인데 철저히 조사하고, 분명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매번 다짐을 합니다. 어찌면 내가 철저히 조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주입하면서 정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연구참여자 2>

맞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잡념이 생겨서 업무에 지장이 되니까 기왕에 나한테 배당된 사건은 정말 꼼꼼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누구라도 그 사건처리가 제대로 조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직무에만 전념하면 잡념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연구참여자 1>

사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사건을 조사했던 당사자가 조사받는 일이 생기니까 전문가적인 마인드로 직무에 전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합니다.<연구참여자 3>

## 4) 또 다른 고통

### (1) 사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

현장출동 경찰관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고 사고조사를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늘 불리한 조사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반복되는 민원제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는데 제기된 민원 해결하느라 다른 업무에 손대지 못할 정도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까지 민원을 제기해서 감찰이라도 받게 되면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죠.<연구참여자 1>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민원을 여러 기관에 넣고 다녀서 해명하느라 몹시 힘든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사건처리 잘못으로 몰아갑니다.<연구참여자 3>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는데 사건처리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처리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정말 힘듭니다. 밥맛도 없고 그냥 술로 끼니를 대신하고 화를 풀기도 합니다.<연구참여자 2>

## (2) 경찰위의 경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경찰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남용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찰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청문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늘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하소연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제도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에 자괴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태종임금은 대궐의 문루에 북을 달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하소연할 때 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신문고와 유사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때로는 기관장을 직접 만나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경우 경찰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연구참여자 1>

민원을 제기해서 청문감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피의자가 된 기분입니다. 민원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많지만 경찰관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연구참여자 3>

경찰이 민원에 얽히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고충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악성 민원인을 보면 동일한 민원을 이곳 저곳에 계속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관공서 기관장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시대입니다.<연구참여자 2>

## (3) 내부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

경찰관이 내부에서 입은 상처는 외부에서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상실감이 크다고 한다. 자신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정당한 사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저는 말도 안되는 모함을 당해 징계위원회에 나갔는데 도대체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민원인 말만 듣고서 저한테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닌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라는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연구참여자 2>

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떳떳하니 혐의 없음으로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계속 추궁당하고 조사받으니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 어렵고, 그 때 제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제가 돌봐야 하는데 저를 아내가 돌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연구참여자 1>

## 5) 마음 내려놓기

### (1) 마음의 휴식이 필요함

경찰관 생활 19년~27년의 경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경찰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경천愛人 경찰愛人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과 국민과의 공감뿐 아니라 경찰관과 경찰관끼리의 공감과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지금 경찰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천직이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을 선택할 것입니다.<연구참여자 3>

네 저는 정말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관이 되었지만 잘 선택한 것 같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늘 다짐합니다.<연구참여자 2>

저는 주변에서 권유해가지고 경찰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5년이 되기까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선배님들이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무조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후배들을 잘 모시고 일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1>

### (2) 필요한 휴식이 보장되는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경찰관은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한다. 자신이 맡은 업무는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휴식은 필요한데 여건이 허락지 않는 것이다.

휴가를 가려고 해도 눈앞에 쌓인 서류들을 보면 휴가를 결정하기 쉽지 않고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습니다.<연구참여자 2>

지금은 가족들이 많이 이해하는 편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들에게 하숙생 취급받기도 했습니다.<연구참여자 3>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힘든 상황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늘 마음의 빔을 지고 살아갑니다. <연구참여자 1>

### 3. 연구결과의 시사점

연구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주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고현장의 참혹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선배)경찰관의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참혹했던 사고현장에 대한 시각과 후각의 기억력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 충격을 완화 또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의 강구와 더불어 사고현장에서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처리한 경험으로 인해 혹시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한다. 특히, 사고현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운영중인 동호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일상화된 사고현장의 인식에 있어서 경찰관들은 책임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사고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정립하거나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또 다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민원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업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 시 범죄자 취급을 당함으로써 인해 대상자들은 PTSD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재 청문감사관제도의 운영방향을 수정·보완하여 대상자들이 청문감사관제도가 공정하고 그나마 조직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

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Trauma를 겪거나 겪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일선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격려 및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음 내려놓기에 있어서는 경찰 동료, 선후배간의 공감과 교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휴식(휴게)시간의 절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증원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 민생일선에서의 경찰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유지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므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 타 부처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않는 참혹한 사건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각종 사건현장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는 끝을 알 수 없는 마라톤을 달리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쫓기면서 개인적으로나 조직 내·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공무원은 임무 특성 상 PTSD 증상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책임성·위험성·긴급성으로 표현되는 경찰임무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Ben Green, 2004: 101-105; 유재두, 2013: 187 재인용). 경찰공무원은 일반부처의 공급행정 업무와 달리 질서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인권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엄격한 책임성이 요구된다(김윤권·지구원, 2010: 155).

앞서 연구결과의 시사점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Trauma와 PTSD를 완화 내지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며, 대상자들에 대한 업무 경감과 동호회 활성화, 전문적인 교육의 확대 실시, 청문감사관제도 운영방향 재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업무스트레스 해소 내지는 완화 방안은 선행연구(이지영외, 2017; 한보람·김정규, 2015)에서 제시하는 방안과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심리검사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 처리 업무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도 높기 때문에 육체적인 휴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기적인 심리검사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공무원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불면증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인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심리지원에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호회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Trauma와 PTSD를 경험한 경찰관들에 대한 동료의 냉소적인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William(1983)은 외상성 사건을 겪은 후 즉각적으로 직장 동료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Stephens & Long, 2000; dldhwjrd·wldudghks, 2010: 181 재인용). 이처럼 경찰내부에서도 Trauma와 PTSD를 경험한 경찰관들에 대한 동료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리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을 심층 면담하여 Trauma와 PTSD에 대한 인식,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하는 경찰관에 대한 신상자료는 개인정보로 공개되지 않아 연구참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경태 (2017). 경찰 마음동행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16(4), 52-66.
- 김윤권, 지규원 (2010). 직무특성을 반영한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행정논총*, 48(1), 140-170.
- 김종길 (201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5), 31-54.
- 박재풍 (2016).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71-98.
- 변영석 외 (2015). 경찰공무원의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로 평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관련 요인. 제55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기술훈수대회자료집.
- 송해영 (2015). 경찰공무원의 외상성사건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주대학교 (2008).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소방방재청 연구보고서.
- 유재두 (2013). 외상 경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형태와 PTSD와의 관계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1), 187-199.
- 이근무, 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이상열 (2005). 한국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후생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4(2), 49-77.
- 이옥정, 지영환 (2010).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외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2(4), 173-203.
- 이정현 외 (2015). 경찰공무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기질 및 성격 특성의 관계. *대한불안학회지*, 11(1), 61-68.
- 이지영, 임재호, 서수연 (2017). 경찰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165-172.
- 이진숙 (2013). 트라우마에 대한 소고. *여성연구논집*, 24, 175-190.
- 최미영, 문태영 (2015). 응급현장 출동 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협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한보람, 김정규 (2014).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사건과 PTSD 증상 및 우울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3(3), 531-548.
-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Green, B.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 101-105.

Markus, H. S., Hunt, B., Palmer, P., Enzinger, C., Schmidt, H., & Schmidt, R. (2005). Markers of endothelial and haemostatic activation and progression of cerebral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longitudinal results of the Austrain Stroke Prevention Study. *Stroke*, 36, 1410-1414.

Stephens, C., & Long, N. (2000).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asure against Trauma  
and PTSD of Police Officers  
—Focu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Targets—**

Kang, Gil-Ju · Lee, Sang-Ye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sychological welfare promotion method of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 trauma and PTSD due to police activity in local community while handling various accidents and protecting civil life and safety at the forefront of the national disaster accident site.

For this objective, following countermeasure was presented through trauma/PTSD-related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 with police officers who experienced trauma and PTSD.

First, psychological examination is required to be performed positively and realistically for the police officers. As police officers have high emotional labor stress not only by physical burden but also by civil service, a regular psychological examination shall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together with physical rest.

Second, proper action for the regular psychological examination result of the police officers is required.

Third,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for the police officer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and for this objective, expansion of police-operated mindful accompanying center and its devoted operation are required to be performed.

Fourth, an opportunity of getting rid of stress of police officers shall be provided and for this objective, required budget for activating club activity is required to be allocated and activity condition should be created.

**Keywords:** Police officer, Trauma, PTSD, Psychological support, Police welfare